

내 사랑하리 시월의 강물을

색양이 짙어가는 푸른 모래톱

지나갈 가졌던 슬픈 여정들을, 아득한 기대를

이제는 홀로 남아 따뜻이 기다리리.

지나 이야기는 해서 무엇하리

뚜껑이 우는 숲 새를 기너서

낮은 돌담에 흐르는 달빛 속에

울리던 木琴소리 복금소리 복금소리.